

WEBVTT

00:00:11.000 --> 00:00:12.136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2.236 --> 00:00:13.291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3.391 --> 00:00:16.274

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하고
화법, 작문을 할 텐데요.

00:00:16.374 --> 00:00:18.644

먼저 화법에 대한
내용부터 진행할 겁니다.

00:00:18.744 --> 00:00:22.810

담화라고 해서 담화는 문법의
한 부분이기도 하고,

00:00:22.910 --> 00:00:25.356

그다음에 이제 화법의 한
부분이기도 한데요.

00:00:25.456 --> 00:00:28.904

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오늘
첫 번째는 대화, 면접, 발표,

00:00:29.004 --> 00:00:30.573

연설에 대한 내용입니다.

00:00:30.673 --> 00:00:31.925

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.

00:00:32.025 --> 00:00:34.935

첫 번째, 대화의 원리를 보면
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뭐라고

00:00:35.035 --> 00:00:39.110

얘기하냐면 화법을 못 하는 친구들은
두 가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.

00:00:39.210 --> 00:00:44.260

첫 번째 뭐냐면, 죄송합니다만
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좀 부족하다

00:00:44.360 --> 00:00:45.464

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.

00:00:45.564 --> 00:00:46.998

농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.

00:00:47.098 --> 00:00:50.052

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
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

00:00:50.152 --> 00:00:53.528

받아들여야 되고, 어떻게 말을
되받아쳐서 말을 해야 되는지를

00:00:53.628 --> 00:00:58.182

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,
그 정도의 상식만 있어도

00:00:58.282 --> 00:01:00.447

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
문제라고 생각합니다.

00:01:00.547 --> 00:01:04.272

물론 그 뒤에 가면 작문 같은
경우는 자료 해석이 문제라든가

00:01:04.372 --> 00:01:09.018

작문의 절차라든가 이런
것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

00:01:09.118 --> 00:01:13.421

화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별한
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요.

00:01:13.521 --> 00:01:16.163

특별한 이론이 나올 때는
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.

00:01:16.263 --> 00:01:18.354

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

00:01:18.454 --> 00:01:19.766

첫 번째 가볼게요.

00:01:19.866 --> 00:01:24.503

대화의 원리는 크게 협력의 원리와
공손성의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00:01:24.603 --> 00:01:26.725

첫 번째 협력의 원리는
양의 격률인데.

00:01:26.825 --> 00:01:29.344

필요한 만큼의 정보를
제공한다는 거예요.

00:01:29.444 --> 00:01:32.217

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
예술에 대해서 얘기하고,

00:01:32.317 --> 00:01:35.487

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전거
타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

00:01:35.587 --> 00:01:36.946

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.

00:01:37.046 --> 00:01:38.850

양을 지켜야 된다, 이런 뜻이야.

00:01:38.950 --> 00:01:41.943

질의 격률은 근거를 들어서
진실을 말해야 된다.

00:01:42.043 --> 00:01:43.937

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

00:01:44.037 --> 00:01:47.277
관련성의 격률이라고 하면 주제와
관련된 것들을 말한다.

00:01:47.377 --> 00:01:48.966
이게 관련성의 격률이고요.

00:01:49.066 --> 00:01:52.178
태도의 격률은 뭐냐면 모호성이나
중의성이 있는 표현을 피하고

00:01:52.278 --> 00:01:53.608
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한다.

00:01:53.708 --> 00:01:54.974
이게 태도의 격률입니다.

00:01:55.074 --> 00:01:58.229
초창기 때 이제 화법 문제가
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

00:01:58.329 --> 00:02:01.537
내용들을 설명하고 밑에 문제에서
확인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,

00:02:01.637 --> 00:02:03.580
최근에는 그런 경향이
좀 사라졌습니다.

00:02:03.680 --> 00:02:06.866
그다음에 공손성의 원리라고
하면 요령의 격률인데.

00:02:06.966 --> 00:02:09.269
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
표현은 최소화하고

00:02:09.369 --> 00:02:10.729
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한다.

00:02:10.829 --> 00:02:12.077
말이 좀 어렵죠?

00:02:12.177 --> 00:02:14.039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2:14.139 --> 00:02:16.969
상대방한테 부탁을 할 때 요령껏
부탁한다, 이런 거예요.

00:02:17.069 --> 00:02:18.747
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

00:02:18.847 --> 00:02:20.496
창문 닫아 이게 아니라
좀 춥지 않니?

00:02:20.596 --> 00:02:22.829
이런 식으로 돌려서

표현하는 거예요.

00:02:22.929 --> 00:02:24.381

문을 닫아주면 어떨겠니?

00:02:24.481 --> 00:02:26.131

이런 식으로 공손하게

표현하는 거죠.

00:02:26.231 --> 00:02:28.725

그걸 요령의 격률이라고 합니다.

00:02:28.825 --> 00:02:31.327

말하는 이 자신에게 혜택을

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

00:02:31.427 --> 00:02:32.863

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한다.

00:02:32.963 --> 00:02:34.097

관용의 격률.

00:02:34.197 --> 00:02:36.927

내가 이렇게 해서, 관용이라고

하는 것은 뭐냐면

00:02:37.027 --> 00:02:39.075

쉽게 말하면 관용은

용서해주다, 이런 뜻이잖아요.

00:02:39.175 --> 00:02:41.737

말하는 이 자신에게 혜택을

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.

00:02:41.837 --> 00:02:43.211

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한다.

00:02:43.311 --> 00:02:47.062

내가, 예를 들어 이런 거죠.

00:02:47.162 --> 00:02:49.798

내가 관용의 격률이라고 하면

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겠니,

00:02:49.898 --> 00:02:51.307

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겠어?

00:02:51.407 --> 00:02:55.233

이런 식으로 관용적으로 상대방에

관용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을

00:02:55.333 --> 00:02:58.954

요구할 때 그것을 이제 관용의

격률이라고 얘기합니다.

00:02:59.054 --> 00:03:01.700

찬동의 격률은 뭐냐면

쉽게 말할게요.

00:03:01.800 --> 00:03:04.156

찬성하는 겁니다, 찬동의

격률은 찬성하는 거야.

00:03:04.256 --> 00:03:07.336

밑에 말이 되게 어렵게
나왔는데, 찬동하는 거예요.

00:03:07.436 --> 00:03:10.429

찬성하는 것을 찬동의
격률이라고 얘기하고요.

00:03:10.529 --> 00:03:12.786

검양의 격률도 이것도 좀 어렵죠.

00:03:12.886 --> 00:03:15.795

칭찬 최소화하고, 비방은
극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

00:03:15.895 --> 00:03:18.059

겸손하게 표현한 거야, 겸손하게.

00:03:18.159 --> 00:03:21.008

상대방이 뭐라고 칭찬하면
제가 아직 부족해서요,

00:03:21.108 --> 00:03:24.075

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로
검양의 격률이라고 하고.

00:03:24.175 --> 00:03:27.609

동의의 격률은 뭐냐면 상대방
의견과 차이점을 최소화하고

00:03:27.709 --> 00:03:28.749

일치점은 최대화한다.

00:03:28.849 --> 00:03:31.285

동의의 격률은 뭐냐면
어떤 주장을 얘기했을 때

00:03:31.385 --> 00:03:32.794

그래, 네 주장도 맞아.

00:03:32.894 --> 00:03:35.512

하지만 이러 이런
것도 있지 않겠니?

00:03:35.612 --> 00:03:37.201

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.

00:03:37.301 --> 00:03:42.875

처음에 동의를 먼저 해준 다음에
그다음에 다른 입장을 얘기할 때

00:03:42.975 --> 00:03:45.133

동의의 격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.

00:03:45.233 --> 00:03:46.492

두 번째 보면 면접입니다.

00:03:46.592 --> 00:03:51.322

면접이라고 하면 면접의

절차를 먼저 살펴볼게요.

00:03:51.422 --> 00:03:55.373

면접하기는 면접자와 피면접자,
면접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.

00:03:55.473 --> 00:04:00.086

면접 전에 준비하려면 유효하고 적절한
질문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.

00:04:00.186 --> 00:04:02.856

객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
마련해야 되고.

00:04:02.956 --> 00:04:05.769

그다음에 면접의 목적에 따라
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

00:04:05.869 --> 00:04:08.286

정확하고 효과적인 답변
방안을 준비하는 거죠.

00:04:08.386 --> 00:04:11.311

그러니까 피면접자라고 하는 건
면접을 당하는 사람이라고

00:04:11.411 --> 00:04:12.763
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4:12.863 --> 00:04:17.267

진짜 본 면접할 때는 준비한 질문을
하고 답변을 청취하고 기록하고요.

00:04:17.367 --> 00:04:18.977

필요할 때 보충 질문하는 거죠.

00:04:19.077 --> 00:04:20.878

예를 들어서 우리
동아리 왜 들었어요?

00:04:20.978 --> 00:04:23.683

그 무언가 얘기했을 때 왜
그런 생각을 했어요?

00:04:23.783 --> 00:04:27.478

어떤 책을 읽었다고 했을 때 그 책에서
감명 깊은 부분이 무엇이었나요?

00:04:27.578 --> 00:04:29.397

이렇게 다시 한번
되받아서 질문하는 것을

00:04:29.497 --> 00:04:31.325

바로 보충 질문이라고
하시면 되겠고.

00:04:31.425 --> 00:04:36.035

본 면접에서 면접받는 사람은
면접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

00:04:36.135 --> 00:04:39.282

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간결하고
효과적으로 대답해야겠죠.

00:04:39.382 --> 00:04:42.900

면접 후에 평가할 때는
정보를 바탕으로 해서

00:04:43.000 --> 00:04:45.655

면접의 성과나 피면접자에
대해서 평가를 하고요.

00:04:45.755 --> 00:04:48.520

자신의 면접 결과에 대해서
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

00:04:48.620 --> 00:04:51.203

바로 면접 후의 평가
단계에 해당합니다.

00:04:51.303 --> 00:04:54.464

질문 유형이라고 하면 폐쇄형
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,

00:04:54.564 --> 00:04:57.356

개방형 질문, 보충 질문이라고
하는 게 있는데요.

00:04:57.456 --> 00:05:00.785

폐쇄형 질문은 뭐냐면 면접자가
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

00:05:00.885 --> 00:05:02.449

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.

00:05:02.549 --> 00:05:04.965

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라고
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.

00:05:05.065 --> 00:05:07.348

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은 무엇인가요?

00:05:07.448 --> 00:05:09.832

답변이 정해져 있고, 그 답을
맞혀야 된다 이런 겁니다.

00:05:09.932 --> 00:05:11.811

그게 바로 폐쇄형 질문이고.

00:05:11.911 --> 00:05:14.867

개방형 질문은 피면접자로
하여금 광범위하게 생각하고

00:05:14.967 --> 00:05:16.519

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에요.

00:05:16.619 --> 00:05:19.621

이 경우, 당신이 교장이라면
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?

00:05:19.721 --> 00:05:21.437

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.

00:05:21.537 --> 00:05:23.439
그래서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고요.

00:05:23.539 --> 00:05:26.604
보충 질문은 피면접자가 답변을
회피하거나 모호하게 할 경우에

00:05:26.704 --> 00:05:32.023
구체적인 정보를 원할 때 한 번 더
질문하는 게 바로 보충 질문이 되겠죠.

00:05:32.123 --> 00:05:35.096
세 번째는 답화 중에
발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

00:05:35.196 --> 00:05:36.695
발표에도 역시 절차가 있죠.

00:05:36.795 --> 00:05:38.364
사전 계획과 준비인데.

00:05:38.464 --> 00:05:41.309
발표의 주제와 목적,
예상 청중 등을 분석하고

00:05:41.409 --> 00:05:42.891
발표 내용을 정하는 거죠.

00:05:42.991 --> 00:05:46.713
발표 내용을 보충해줄 자료들을
준비하는 게 바로 사전 계획입니다.

00:05:46.813 --> 00:05:48.368
발표 자료도 제작해야겠죠?

00:05:48.468 --> 00:05:51.114
도표, 그림, 사진 뭐
이런 것들을 준비하고요.

00:05:51.214 --> 00:05:53.825
제한된 시간에 맞게
효과적으로 조직합니다.

00:05:53.925 --> 00:05:56.202
도입 부분하고 전개-정리 구조.

00:05:56.302 --> 00:05:58.241
3단 구조를 취하는 게 되게 좋죠.

00:05:58.341 --> 00:06:01.732
도입을 할 때, 발표할 때 도입할
때 여러분은 얼마 전에 TV에서

00:06:01.832 --> 00:06:04.143
이런 거 보셨죠라고 하면서
관심을 유발한다거나

00:06:04.243 --> 00:06:05.908
그런 내용들이 적절하겠죠.

00:06:06.008 --> 00:06:09.569

그다음에 전개된다면 그
내용을 성실하게 준비해서

00:06:09.669 --> 00:06:10.779

말하는 게 중요하고요.

00:06:10.879 --> 00:06:13.026

정리는 이상으로 이렇게
이렇게 마치겠습니다.

00:06:13.126 --> 00:06:15.008

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.

00:06:15.108 --> 00:06:16.702

발표 연습 및 점검인데.

00:06:16.802 --> 00:06:19.040

만들어진 자료를 바탕으로
발표 연습을 해본다.

00:06:19.140 --> 00:06:21.967

발표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며
발표 자료를 수정한다.

00:06:22.067 --> 00:06:25.699

그다음에 발표 및 평가할 때 실제
발표한 다음에 발표한 내용을

00:06:25.799 --> 00:06:27.570

점검하고 스스로 평가해야죠.

00:06:27.670 --> 00:06:30.658

그래야지 다음 발표 때 좀 더
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.

00:06:30.758 --> 00:06:32.801

발표 내용의 조직 방법은
아까 얘기했던 것처럼

00:06:32.901 --> 00:06:34.681

도입, 전개, 정리인데요.

00:06:34.781 --> 00:06:37.773

도입 부분은 발표의 목적,
주제, 배경을 설명하고요.

00:06:37.873 --> 00:06:40.700

발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
발표자를 먼저 소개하고

00:06:40.800 --> 00:06:43.623

이 친구는 이렇게 발표할 거고,
이 사람은 이렇게 발표할 거고

00:06:43.723 --> 00:06:46.479

이런 것들을 안내를 먼저
해주는 게 좋아요.

00:06:46.579 --> 00:06:48.948

전개는 조사한 내용을

구체적으로 밝히는 거고,

00:06:49.048 --> 00:06:51.098

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
것이 좋고요.

00:06:51.198 --> 00:06:52.777

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 왜?

00:06:52.877 --> 00:06:54.898

신빙성이 높아지니까,
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

00:06:54.998 --> 00:06:56.888

다양한 매체가 필요하겠죠.

00:06:56.988 --> 00:06:59.470

발표 내용에 대해서
요약하고 강조하고요.

00:06:59.570 --> 00:07:04.676

당부하고 싶은 것을 짧게
언급하는 것이 바로 정리입니다.

00:07:04.776 --> 00:07:06.093

마지막으로 연설입니다.

00:07:06.193 --> 00:07:09.744

연설은 한 사람의 연사가 다수의
청중을 대상으로 특정한

00:07:09.844 --> 00:07:13.028

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공식적인
말하기를 바로 연설이라고 합니다.

00:07:13.128 --> 00:07:15.539

연설 준비는 상황과
청중 분석해야죠.

00:07:15.639 --> 00:07:17.373

어떤 상황에서 연설을 하는 건지.

00:07:17.473 --> 00:07:19.503

내가 시장 선거 나가는지,
반장 선거 나가는지

00:07:19.603 --> 00:07:20.974

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잖아요.

00:07:21.074 --> 00:07:24.965

그다음에 청중이 어떤 사람인지,
청중이 노인인지 아니면

00:07:25.065 --> 00:07:30.628

예를 들어서 중산층인지, 하층민인지
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.

00:07:30.728 --> 00:07:33.581

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,
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.

00:07:33.681 --> 00:07:36.236

연설의 유형, 목적,
주제를 결정하고요.

00:07:36.336 --> 00:07:37.540

자료의 수집, 선정.

00:07:37.640 --> 00:07:39.902

자료 조직과 개요도 작성을
해주는 게 좋죠.

00:07:40.002 --> 00:07:43.892

모든 글을 준비할 때는
일목요연하게 요약정리를 해서

00:07:43.992 --> 00:07:47.261

개요표를 만들고 발표하는 게
나중에 발표를 할 때도

00:07:47.361 --> 00:07:50.063

두서없이 이렇게 발표하는
것이 아니기 때문에

00:07:50.163 --> 00:07:52.172

개요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겠죠.

00:07:52.272 --> 00:07:53.799

그거에 따라서 연설문 작성하고요.

00:07:53.899 --> 00:07:57.705

연설을 연습하는 이런 과정들이
바로 연설의 준비 절차입니다.

00:07:57.805 --> 00:07:59.376

우리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.

00:07:59.476 --> 00:08:02.730

다만 처음에 나오는 협력의
원리,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

00:08:02.830 --> 00:08:04.480

무슨 격률 나온 거 있잖아요.

00:08:04.580 --> 00:08:08.573

이건 사실 최근에는 수능 시험에
거의 안 나오는 추세니까요.

00:08:08.673 --> 00:08:10.879

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00:08:10.979 --> 00:08:13.045

문제로 개념 확인 한번 볼까요?

00:08:13.145 --> 00:08:17.864

피면접자는 면접 결과에 대해 점검
및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.

00:08:17.964 --> 00:08:19.005

X죠, 당연히.

00:08:19.105 --> 00:08:20.215

필요하겠죠.

00:08:20.315 --> 00:08:22.920
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진술하도록
하는 질문을 뭐라고 하나면

00:08:23.020 --> 00:08:24.724
개방형 질문이라고 하죠.

00:08:24.824 --> 00:08:27.241
발표하는 내용 구성상
대체로 뭐라고 했냐면

00:08:27.341 --> 00:08:30.302
도입, 전개, 정리
세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.

00:08:30.402 --> 00:08:31.917
그렇게 구성하는 게 좋겠다.

00:08:32.017 --> 00:08:35.454
그다음에 4번은 발표를 할 때는
목적, 청중, 상황에 맞게

00:08:35.554 --> 00:08:39.661
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되, 반언어적
표현,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.

00:08:39.761 --> 00:08:44.244
반언어적 표현하고, 비언어적 표현은
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.

00:08:44.344 --> 00:08:46.614
정답은 4번은 X입니다.

00:08:46.714 --> 00:08:49.462
반언어적 표현하고 비언어적
표현은 이런 거예요.

00:08:49.562 --> 00:08:51.434
비언어는 뭐냐면, 애들아.

00:08:51.534 --> 00:08:53.254
언어 표현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.

00:08:53.354 --> 00:08:55.579
비, 아닐 비 자를
써요, 아닐 비 자.

00:08:55.679 --> 00:08:57.482
언어가 아예 없다는 거죠.

00:08:57.582 --> 00:08:58.914
제스처 이런 거에 따라서.

00:08:59.014 --> 00:09:01.748
제스처라든가 아니면 어떤
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

00:09:01.848 --> 00:09:05.523
바로 비언어라고 하는 거고, 이거는

말이, 언어가 아예 없는 거예요.

00:09:05.623 --> 00:09:09.512
반언어라고 하면 반언어는 절반
정도 언어가 필요하다는,

00:09:09.612 --> 00:09:10.962
절반이라는 뜻입니다.

00:09:11.062 --> 00:09:12.289
그러니까 이런 거죠.

00:09:12.389 --> 00:09:14.694
열심히 합시다, 이렇게
하는 거 하고

00:09:14.794 --> 00:09:16.435
열심히 합시다, 이런
거랑 다른 거잖아요.

00:09:16.535 --> 00:09:22.344
그러니까 강약이라든가 어조라든가
말투라든가 빠르기, 속도라든가

00:09:22.444 --> 00:09:25.794
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키면서
의도를 강조할 수 있거든요.

00:09:25.894 --> 00:09:31.064
당연히 발표할 때는 강조하는
부분에서는 세계 얘기하고,

00:09:31.164 --> 00:09:34.312
천천히 얘기하고, 이런
것들이 필요한 거니까

00:09:34.412 --> 00:09:36.628
반언어적 표현, 비언어적
표현이 다 필요하죠.

00:09:36.728 --> 00:09:38.392
두 개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.

00:09:38.492 --> 00:09:41.567
한 사람의 연사가 다수의 청중을
대상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

00:09:41.667 --> 00:09:44.307
말하는 것을 바로
연설이라고 합니다.

00:09:44.407 --> 00:09:46.878
그러면 다음 내용
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09:46.978 --> 00:09:49.975
유형 연습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.

00:09:50.075 --> 00:09:53.484
1번 문제를 보시면 대표
유형이 뭐냐면 설명으로

00:09:53.584 --> 00:09:56.543

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
해서 이거는 여러분,

00:09:56.643 --> 00:09:59.316

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.

00:09:59.416 --> 00:10:01.545

㉠, ㉡, ㉢, ㉣, ㉤ 나올 때.

00:10:01.645 --> 00:10:03.269

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

00:10:03.369 --> 00:10:07.851

2번을 보면 진희가 ㉠를
대상으로, ㉠가 어디 있습니까?

00:10:07.951 --> 00:10:10.063

친구 문제, 진로 문제 나왔죠.

00:10:10.163 --> 00:10:13.358

㉢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래
상담 동아리에 상담하기 위해서

00:10:13.458 --> 00:10:16.339

단계별 발화로 적절하지
않은 것은입니다.

00:10:16.439 --> 00:10:19.608

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게
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.

00:10:19.708 --> 00:10:21.875

읽어보면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

00:10:21.975 --> 00:10:24.111

상담실에 들어서며
선생님 안녕하세요?

00:10:24.211 --> 00:10:27.891

저 선생님 혹시 시간 좀
있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10:27.991 --> 00:10:30.254

1번에 1번 선택지 볼게요.

00:10:30.354 --> 00:10:34.227

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
사용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

00:10:34.327 --> 00:10:36.444

상대방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.

00:10:36.544 --> 00:10:39.725

요령의 격률이라고 해서
요령껏 부탁한다,

00:10:39.825 --> 00:10:41.309

이렇게 생각하라고
얘기했잖아요, 그렇지요?

00:10:41.409 --> 00:10:44.359

선생님 시간 내주세요,
이것보다는 시간 좀 있으세요?

00:10:44.459 --> 00:10:47.228

이렇게 부탁하는 게
좀 더 공손하죠.

00:10:47.328 --> 00:10:49.371

그러니까 선생님,
시간 좀 있으세요?

00:10:49.471 --> 00:10:52.455

이게 바로 첫 번째 요령의
격률이라고 해서 1번 선택지,

00:10:52.555 --> 00:10:53.986

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한다.

00:10:54.086 --> 00:10:54.998

적절합니다.

00:10:55.098 --> 00:10:56.043

응, 괜찮아.

00:10:56.143 --> 00:10:57.259

여기 앉아서 편하게 말해 보렴.

00:10:57.359 --> 00:10:58.200

무슨 일이니?

00:10:58.300 --> 00:11:00.521

자리에 앉으며, 제가
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

00:11:00.621 --> 00:11:03.805

친구 문제나 진로 문제
때문에 고민이 있는데.

00:11:03.905 --> 00:11:06.920

부모님이나 선생님께
선뜻 고민을 털어놓기

00:11:07.020 --> 00:11:09.045

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

00:11:09.145 --> 00:11:10.534

그러니까 결국은 봐봐.

00:11:10.634 --> 00:11:15.220

2번에 @를 대상으로, 즉
고민 있는데 부모님, 선생님께

00:11:15.320 --> 00:11:17.853

선뜻 털어놓기 힘들어하는
경우가 많더라고요.

00:11:17.953 --> 00:11:20.931

그런 친구들한테 이 글을 쓰는
거예요, 2번 문제처럼.

00:11:21.031 --> 00:11:25.344
그럴 때 그 친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
상대해 줄 사람이 있으면

00:11:25.444 --> 00:11:27.472
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
제가 몇몇 친구들이랑

00:11:27.572 --> 00:11:29.835
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.

00:11:29.935 --> 00:11:32.450
그러니까 또래 친구들끼리 이렇게
상담할 수 있는 동아리를

00:11:32.550 --> 00:11:33.880
만들었다는 겁니다.

00:11:33.980 --> 00:11:34.922
좋은 생각을 했구나.

00:11:35.022 --> 00:11:37.658
선생님도 또래 상담 동아리가
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단다.

00:11:37.758 --> 00:11:40.107
물론 상담 선생님하고
상담하는 것도 좋지만,

00:11:40.207 --> 00:11:42.159
같은 또래 친구들이
상담해주는 것도 좋지.

00:11:42.259 --> 00:11:45.057
편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해결
방안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.

00:11:45.157 --> 00:11:47.072
오른쪽 1번에 2번 문제 볼까요?

00:11:47.172 --> 00:11:52.154
상대방과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
태도 변화를 요청한다.

00:11:52.254 --> 00:11:53.062
틀렸죠.

00:11:53.162 --> 00:11:54.557
너 그렇게 하지 마.

00:11:54.657 --> 00:11:56.677
너 또래 상담 그거 동아리 없애.

00:11:56.777 --> 00:11:58.780
그게 바로 태도 변화를
요구하는 거고요.

00:11:58.880 --> 00:12:02.411
그다음에 상대방과 공유한
정보가 아니잖아요, 그렇지요?

00:12:02.511 --> 00:12:07.160

상대방 말에 그냥 애는 공감을
하고 있는 것뿐이에요.

00:12:07.260 --> 00:12:09.318

정보를 서로 공유하고
있는 건 아니거든요.

00:12:09.418 --> 00:12:11.269

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.

00:12:11.369 --> 00:12:13.035

문제 편하게 풀었네요.

00:12:13.135 --> 00:12:14.090

그다음 넘어갑니다.

00:12:14.190 --> 00:12:17.411

네, 그런데 막상 또래 상담 동아리를
만들어서 상담을 할 생각하니까

00:12:17.511 --> 00:12:19.796

어떻게 상담하면 친구들에게
도움이 될지 잘 몰라서요.

00:12:19.896 --> 00:12:22.378

그러니까 상담 방법을
알고 싶다는 거지?

00:12:22.478 --> 00:12:24.034

㉔ 볼까요?

00:12:24.134 --> 00:12:27.128

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
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.

00:12:27.228 --> 00:12:30.368

게 필요한 거 맞나라고 상대방
의도를 내가 정확하게

00:12:30.468 --> 00:12:32.854

파악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됩니다.

00:12:32.954 --> 00:12:35.319

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가장
중요한 건 친구의 말을

00:12:35.419 --> 00:12:37.397

잘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.

00:12:37.497 --> 00:12:40.252

혹시 친구가 말하는 내용이
네 생각과 맞지 않아도

00:12:40.352 --> 00:12:42.904

선불리 비판하지는 말고.

00:12:43.004 --> 00:12:45.383

㉔ 보면 고개를
끄덕이며, 그렇군요.

00:12:45.483 --> 00:12:46.524
㉔ 볼까요?

00:12:46.624 --> 00:12:49.748
상대방 말에 수긍함을
언어적, 비언어적 표현으로.

00:12:49.848 --> 00:12:50.631
잘 보세요.

00:12:50.731 --> 00:12:53.741
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
비언어적입니다, 행동이 짝아요.

00:12:53.841 --> 00:12:56.071
그렇군요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이죠.

00:12:56.171 --> 00:12:59.247
그러니까 언어와 비언어적
표현이 함께 쓰였습니다.

00:12:59.347 --> 00:13:02.941
그렇게 하면 친구가 자기의
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군요.

00:13:03.041 --> 00:13:05.704
그렇지, 그리고 그
친구의 생각과 감정을

00:13:05.804 --> 00:13:08.326
너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
전달하는 것도 중요해.

00:13:08.426 --> 00:13:10.422
그래, 그것 때문에
그게 힘들었구나.

00:13:10.522 --> 00:13:12.222
이렇게 동감하는 게 중요한 거죠.

00:13:12.322 --> 00:13:13.497
정말 그렇겠네요.

00:13:13.597 --> 00:13:14.723
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?

00:13:14.823 --> 00:13:16.783
1번에 5번 선택지.

00:13:16.883 --> 00:13:19.559
상대방 말에 동의하면서,
그렇겠네요, 동의했잖아요.

00:13:19.659 --> 00:13:21.313
상식으로 풀 수 있는
겁니다, 여러분.

00:13:21.413 --> 00:13:22.643
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?

00:13:22.743 --> 00:13:25.136

추가적인 정보를
요구하는 있는 거죠.

00:13:25.236 --> 00:13:26.105
적절합니다.

00:13:26.205 --> 00:13:29.321
또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
얘기해주며 용기를 주는 것도

00:13:29.421 --> 00:13:30.596
도움이 될 거야.

00:13:30.696 --> 00:13:32.247
네, 선생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.

00:13:32.347 --> 00:13:35.625
그런데 상담을 하려면 이보다
알아야 할 것들이 훨씬 많단다.

00:13:35.725 --> 00:13:39.279
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을
제대로 하려면 상담 방법을

00:13:39.379 --> 00:13:42.592
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테니까
선생님이 관련 기관을 소개해 줄게.

00:13:42.692 --> 00:13:43.797
고맙습니다.

00:13:43.897 --> 00:13:47.150
많은 학생이 또래 상담 동아리를
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

00:13:47.250 --> 00:13:49.718
열심히 노력할게요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13:49.818 --> 00:13:51.534
글의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요.

00:13:51.634 --> 00:13:54.212
1번은 아까 봤던 것처럼
공유한 정보가 아니고요.

00:13:54.312 --> 00:13:55.877
상대방 말에 공감한 것뿐이고.

00:13:55.977 --> 00:13:58.346
태도 변화를 요청한다는
것도 틀렸죠.

00:13:58.446 --> 00:14:01.094
너 이러이러한 생각이니까
너 그 생각을 바꿔,

00:14:01.194 --> 00:14:02.710
이렇게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.

00:14:02.810 --> 00:14:03.859
정답 2번입니다.

00:14:03.959 --> 00:14:05.098
2번 문제가 좀 긴데요.

00:14:05.198 --> 00:14:08.817
㉠를 대상으로 ㉢를 홍보하기
위해 교내 방송을 하고자 한다.

00:14:08.917 --> 00:14:11.463
내용을 조직하고자 할 때
각 단계에 따른 발화로

00:14:11.563 --> 00:14:13.228
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.

00:14:13.328 --> 00:14:16.780
1단계, 관심을 끌 질문 던지고요.

00:14:16.880 --> 00:14:19.096
문제 상황과 청자를 연관시킨다.

00:14:19.196 --> 00:14:21.041
여러분, 이런 고민 많으시죠?

00:14:21.141 --> 00:14:22.222
뭐 이런 거잖아요.

00:14:22.322 --> 00:14:23.549
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요.

00:14:23.649 --> 00:14:25.787
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
사례를 제시하고요.

00:14:25.887 --> 00:14:27.806
방법을 안내합니다.

00:14:27.906 --> 00:14:30.171
이런 과정인데, 적절하지
않은 걸 골라라.

00:14:30.271 --> 00:14:31.985
1단계, 글씨가 좀 작네요.

00:14:32.085 --> 00:14:34.490
여러분, 드라마 OO 보셨죠?

00:14:34.590 --> 00:14:38.074
또래 친구에게 고민거리를
털어놓고 위로받는 모습이

00:14:38.174 --> 00:14:39.459
참 인상적이지 않았나요?

00:14:39.559 --> 00:14:42.205
1단계, 관심을 끌 질문을 던진다.

00:14:42.305 --> 00:14:43.484
보셨죠?

00:14:43.584 --> 00:14:44.451

질문 던졌죠.

00:14:44.551 --> 00:14:45.998
적절합니다, 그렇죠?

00:14:46.098 --> 00:14:47.056
2번을 볼까요?

00:14:47.156 --> 00:14:49.842
여러분은 고민이 있어도
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

00:14:49.942 --> 00:14:51.844
말씀드리기 부담스러워 고민을
이야기하지 못한 적이

00:14:51.944 --> 00:14:53.666
있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네요.

00:14:53.766 --> 00:14:57.626
2단계 보면 문제 상황이 청자,
여러분이 이런 고민 있었을 겁니다.

00:14:57.726 --> 00:14:58.848
적절하죠.

00:14:58.948 --> 00:15:00.421
3단계 볼까요?

00:15:00.521 --> 00:15:02.093
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

00:15:02.193 --> 00:15:04.455
말하기 힘들었던 여러분의
고민을 OO 상담 동아리에서

00:15:04.555 --> 00:15:06.297
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.

00:15:06.397 --> 00:15:07.757
3단계 뭐였죠?

00:15:07.857 --> 00:15:09.160
해결 방안 제시해준 거죠.

00:15:09.260 --> 00:15:10.712
OO 상담 동아리니까.

00:15:10.812 --> 00:15:11.832
4단계 볼까요?

00:15:11.932 --> 00:15:13.027
4단계 다시 앞에 봅니다.

00:15:13.127 --> 00:15:15.289
사례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.

00:15:15.389 --> 00:15:18.234
고민을 털어놓지 않은 채 계속
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으면

00:15:18.334 --> 00:15:20.728

자신뿐만 아니라 주변
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.

00:15:20.828 --> 00:15:21.627

사례가 없죠.

00:15:21.727 --> 00:15:23.795

저번에 이런 친구가 와서
상담을 받았었는데,

00:15:23.895 --> 00:15:27.254

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가더군요,
고민이 해결됐습니다.

00:15:27.354 --> 00:15:28.714

이런 게 바로 사례잖아요.

00:15:28.814 --> 00:15:29.669

정답 4번.

00:15:29.769 --> 00:15:31.145

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.

00:15:31.245 --> 00:15:33.989

상담 가능 날짜 확인한
다음에 연락처로 신청하시고

00:15:34.089 --> 00:15:37.060

만나서 고민을 털어놓아
보세요라고 해서 실행 방법을

00:15:37.160 --> 00:15:38.811

안내한 거니까 적절하죠.

00:15:38.911 --> 00:15:40.987
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15:41.087 --> 00:15:41.866

어떤가요, 여러분?

00:15:41.966 --> 00:15:43.347

그렇게 어렵지는 않죠?

00:15:43.447 --> 00:15:44.591

넘어가 보겠습니다.

00:15:44.691 --> 00:15:47.439

유형 연습 두 번째로
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15:47.539 --> 00:15:49.269

첫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?

00:15:49.369 --> 00:15:54.241

문제는 (가)의 상황에서,
첫 번째 (가) 상황에서, 이겁니다.

00:15:54.341 --> 00:15:57.998

(가) 상황에서 ㉠의 해소
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5:58.098 --> 00:16:00.077
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.

00:16:00.177 --> 00:16:01.658
이것의 해소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?

00:16:01.758 --> 00:16:04.777
2번은 학생 2의 발표 계획이다.

00:16:04.877 --> 00:16:06.565
(나)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?

00:16:06.665 --> 00:16:11.070
(나)의 발표문에 여기 있는 게
ㄱ, ㄴ, ㄷ, ㄹ, ㅁ 중에

00:16:11.170 --> 00:16:12.939
없는 것을 찾아라, 이런 뜻입니다.

00:16:13.039 --> 00:16:15.529
그다음에 3번 보면 (나)
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

00:16:15.629 --> 00:16:20.637
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
한번 골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16:20.737 --> 00:16:21.569
가볼게요.

00:16:21.669 --> 00:16:23.228
내일은 내가 발표할 차례지?

00:16:23.328 --> 00:16:24.460
(가)의 내용입니다.

00:16:24.560 --> 00:16:25.450
준비는 다 했어?

00:16:25.550 --> 00:16:28.510
솔방울과 습도의 관계에
대해서 발표하려고 해.

00:16:28.610 --> 00:16:30.628
자료 준비는 충분한 것 같은데.

00:16:30.728 --> 00:16:32.107
자료 준비는 충분했어요.

00:16:32.207 --> 00:16:34.042
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.

00:16:34.142 --> 00:16:38.791
여기에서 애한테 조언을 할 때 너
자료를 준비 더 해야 되지 않아,

00:16:38.891 --> 00:16:40.520
이렇게 조언을 하면
되겠니, 안 되겠니?

00:16:40.620 --> 00:16:41.541
안 되죠.

00:16:41.641 --> 00:16:42.987
자료 준비는 충분하다고 했으니까.

00:16:43.087 --> 00:16:45.899
그게 바로 상식적인 거고,
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

00:16:45.999 --> 00:16:47.333
정상적인 인간관계잖아요.

00:16:47.433 --> 00:16:49.498
애한테 그렇게 조언을
하면 안 되겠죠.

00:16:49.598 --> 00:16:51.313
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.

00:16:51.413 --> 00:16:54.136
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
있을지, 1번 문제입니다.

00:16:54.236 --> 00:16:55.748
흥미로운 주제네.

00:16:55.848 --> 00:16:59.195
술방울과 습도의 관계에 대해
자료 준비도 잘한 것 같은데

00:16:59.295 --> 00:17:00.268
뭘 그렇게 걱정해?

00:17:00.368 --> 00:17:01.795
애 고민거리가 뭘지 알아야죠.

00:17:01.895 --> 00:17:04.575
사실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
발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.

00:17:04.675 --> 00:17:07.763
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나에게
집중하면 오히려 발표를

00:17:07.863 --> 00:17:10.052
잘 못 할 것 같아,
문제 상황이에요.

00:17:10.152 --> 00:17:13.481
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
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

00:17:13.581 --> 00:17:15.011
그래서 떨릴 것 같다고
얘기하고 있는 거죠.

00:17:15.111 --> 00:17:16.469
긴장할 것 같다.

00:17:16.569 --> 00:17:18.443

그게 문제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

00:17:18.543 --> 00:17:20.677
사진을 보여주며, 보시는 것처럼.

00:17:20.777 --> 00:17:21.970
보세요.

00:17:22.070 --> 00:17:27.560
앞에 붙게요.

00:17:27.660 --> 00:17:34.639
집중하면 오히려 발표를 잘 못할
것 같아, 이렇게 얘기했죠?

00:17:34.739 --> 00:17:36.474
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이고요.

00:17:36.574 --> 00:17:38.583
밑에 뒤에 두 문장이
좀 빠져 있네요.

00:17:38.683 --> 00:17:41.403
그러면 몇몇 친구들 앞에서
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 어때?

00:17:41.503 --> 00:17:43.095
어떻게 해야 할지 알
수 있을 것 같아.

00:17:43.195 --> 00:17:44.239
네 말대로 해볼게.

00:17:44.339 --> 00:17:45.850
이게 바로 해소 방안입니다.

00:17:45.950 --> 00:17:48.865
말하기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
어떻게 해소하는 거냐면

00:17:48.965 --> 00:17:50.704
연습을 통해 한번 해소해 봐라.

00:17:50.804 --> 00:17:54.864
이런 해소 방안으로 적절한 것 1번에서
찾으면 되겠죠, 1번 문제에서.

00:17:54.964 --> 00:17:55.933
됐습니까?

00:17:56.033 --> 00:17:58.156
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,

00:17:58.256 --> 00:18:01.730
두 번째 내용은 발표
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

00:18:01.830 --> 00:18:03.320
발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.

00:18:03.420 --> 00:18:05.411

앞부분을 조금만 읽어볼게요.

00:18:05.511 --> 00:18:07.529

여기 뒷부분, 앞부분이
조금 빠져 있습니다.

00:18:07.629 --> 00:18:08.654

가볼게요.

00:18:08.754 --> 00:18:11.062

여러분은 술방을 한 번쯤
본 적이 있을 테니까

00:18:11.162 --> 00:18:13.132

술방울이 어떻게 생겼는지
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.

00:18:13.232 --> 00:18:16.054

제가 지금부터 발표하는
내용은 술방울의 모양과

00:18:16.154 --> 00:18:17.950

습도에 관한 것입니다라고
되어 있어요.

00:18:18.050 --> 00:18:20.726

그러니까 이게 발표 내용을
미리 제시한 거고요.

00:18:20.826 --> 00:18:23.850

바닥에 떨어진 술방울을 잘
살펴보면 날씨에 따라

00:18:23.950 --> 00:18:26.082

오므라들기도 하고 벌어지기도
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?

00:18:26.182 --> 00:18:28.253

청중의 반응을 살폈죠.

00:18:28.353 --> 00:18:30.886

그럼 술방울의 구조부터
말씀드리겠습니다.

00:18:30.986 --> 00:18:31.945

여기 볼게요.

00:18:32.045 --> 00:18:32.963

죄송합니다.

00:18:33.063 --> 00:18:35.131

사진을 보여주며, 보시는
것처럼 술방울 겉면은

00:18:35.231 --> 00:18:38.676

작은 조각들이 물고기 비늘처럼
서로 조금씩 겹쳐져 있습니다.

00:18:38.776 --> 00:18:40.377

우리가 술방울 본 적
있잖아요, 그렇지요?

00:18:40.477 --> 00:18:45.459

이 조각을 실편이라고 하는데,
실편 한 개는 대개 소나무 씨앗

00:18:45.559 --> 00:18:48.157

한 개씩을 감싸고
있습니다, 실편 하나가.

00:18:48.257 --> 00:18:51.896

솔방울 하나는 보통 70에서 100개
정도의 실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.

00:18:51.996 --> 00:18:52.992

될지 아시죠, 솔방울?

00:18:53.092 --> 00:18:54.864

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조각
떨 수도 있잖아요.

00:18:54.964 --> 00:18:56.470

그거 하나를 실편이라고 하나 봐요.

00:18:56.570 --> 00:19:00.104

각 실편을 이루는 조직 중에서
바깥쪽 조직은 안쪽 조직보다.

00:19:00.204 --> 00:19:04.727

바깥쪽이 안쪽 조직보다 습기에
더 빨리 반응합니다.

00:19:04.827 --> 00:19:08.001

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일치
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

00:19:08.101 --> 00:19:09.605

최근에 비문학처럼.

00:19:09.705 --> 00:19:11.581

이 부분은 영상을 보면
쉽게 이해되실 겁니다.

00:19:11.681 --> 00:19:14.832

영상도 보여줬죠,
사진도 보여줬습니다.

00:19:14.932 --> 00:19:18.306

벌어진 솔방울에 물을 부르면
솔방울이 서서히 오므라드는데요.

00:19:18.406 --> 00:19:22.250

이것은 실편의 바깥쪽 조직이
안쪽 조직보다 물기를 더 빨리

00:19:22.350 --> 00:19:24.737

흡수해서 그만큼 빨리
팽창하기 때문입니다.

00:19:24.837 --> 00:19:27.648

따라서 실편들이 모두
안쪽으로 굽어져서 솔방울이

00:19:27.748 --> 00:19:29.358
오므라들게 되는 것이죠.

00:19:29.458 --> 00:19:31.537
이 솔방울을 건조시키면
어떻게 될까요?

00:19:31.637 --> 00:19:33.109
청중의 대답 듣고, 맞습니다.

00:19:33.209 --> 00:19:35.975
실편 바깥쪽 조직이
안쪽보다 더 먼저 수축해서

00:19:36.075 --> 00:19:40.333
솔방울이 다시 벌어지게
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19:40.433 --> 00:19:42.839
옛날 사람들은 이런
솔방울의 특성을 알고

00:19:42.939 --> 00:19:46.013
솔방울이 벌어지는 정도로
날씨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.

00:19:46.113 --> 00:19:47.828
그러니까 습도를 예측하는 거죠.

00:19:47.928 --> 00:19:51.341
오늘날에도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는
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

00:19:51.441 --> 00:19:54.686
그중에는 땀을 잘 배출하도록
고안된 운동복도 있습니다.

00:19:54.786 --> 00:19:56.223
이 솔방울에서.

00:19:56.323 --> 00:19:59.354
이 운동복은 솔방울의 특성을
이용해서 땀을 외부로 배출하는 데

00:19:59.454 --> 00:20:01.421
초점을 맞춰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.

00:20:01.521 --> 00:20:04.027
운동할 때 이런 운동복을 입으면
참 시원할 것 같습니다.

00:20:04.127 --> 00:20:06.519
지금까지 솔방울이 습도에
따라 모양이 변하는 이유와

00:20:06.619 --> 00:20:09.515
원리를 생활에 이용한 사례를
소개해 드렸습니다.

00:20:09.615 --> 00:20:12.347

여기까지가 마지막 정리 부분입니다.

00:20:12.447 --> 00:20:14.527
그러면 1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.

00:20:14.627 --> 00:20:17.700
㉠의 해소 방안으로 가장
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는데.

00:20:17.800 --> 00:20:20.922
애가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
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것이

00:20:21.022 --> 00:20:22.389
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.

00:20:22.489 --> 00:20:25.095
그러니까 앞에서 연습을
한번 해보는 게 어때?

00:20:25.195 --> 00:20:26.449
그걸 찾으시면 되겠죠.

00:20:26.549 --> 00:20:27.621
1번이 정답입니다.

00:20:27.721 --> 00:20:31.263
경험이 부족해서 부담감 느끼고
있으므로, 이게 문제 상황이잖아요.

00:20:31.363 --> 00:20:34.133
친구들 앞에서 연습을
하며 자신감을 얻는다.

00:20:34.233 --> 00:20:35.263
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.

00:20:35.363 --> 00:20:36.902
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.

00:20:37.002 --> 00:20:38.046
연습하면 되는 거예요.

00:20:38.146 --> 00:20:39.397
왜?

00:20:39.497 --> 00:20:42.909
그 뒤에 (가) 부분에서 밑에서
두 번째 학생 1이 뭐라고 하나면

00:20:43.009 --> 00:20:45.469
친구들 앞에서 연습을
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

00:20:45.569 --> 00:20:49.071
해결 방안이 나왔으니까
정답 1번 그대로죠.

00:20:49.171 --> 00:20:50.654
정답 1번입니다.

00:20:50.754 --> 00:20:52.236
학생 2의 발표 계획이다.

00:20:52.336 --> 00:20:54.929
(나)에 반영되지 않은
것은이라고 했는데.

00:20:55.029 --> 00:20:59.036
이거는 학생 2의 발표,
(나)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

00:20:59.136 --> 00:21:00.426
없는 걸 찾으려면 되는 겁니다.

00:21:00.526 --> 00:21:01.403
가볼까요?

00:21:01.503 --> 00:21:04.296
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하는
방식으로 질문한다.

00:21:04.396 --> 00:21:07.127
처음에 솔방울 한번
보신 적 있잖아요?

00:21:07.227 --> 00:21:08.923
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적절하죠.

00:21:09.023 --> 00:21:12.620
설명하려는 현상을 명료하게 전달하기
위해서 매체 자료 활용했죠.

00:21:12.720 --> 00:21:15.633
사진도 활용했고요, 영상
자료도 활용했습니다.

00:21:15.733 --> 00:21:17.405
ㄴ 적절하네요.

00:21:17.505 --> 00:21:18.596
ㄷ 볼까요?

00:21:18.696 --> 00:21:21.022
소개하려는 사례가
경제적으로 유용하다.

00:21:21.122 --> 00:21:22.092
없습니다.

00:21:22.192 --> 00:21:24.646
어떻게 경제적으로 유용하다는
것은 우리 산업에 필요하고,

00:21:24.746 --> 00:21:29.363
어떤 돈을 벌 수 있고, 이런
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.

00:21:29.463 --> 00:21:31.862
그러니까 통계 자료도
나오지 않았습시다.

00:21:31.962 --> 00:21:33.846
그러니까 정답이 ㄷ이 되겠네요.

00:21:33.946 --> 00:21:37.488
다만 이런 연구가 운동복을
연구한다는 그것만 나와 있죠.

00:21:37.588 --> 00:21:40.806
그게 경제적으로 유용하다
그리고 또 그게 통계 자료로

00:21:40.906 --> 00:21:42.335
제시되지도 않았습시다.

00:21:42.435 --> 00:21:43.726
정답은 3번입니다.

00:21:43.826 --> 00:21:46.358
3번을 볼까요?

00:21:46.458 --> 00:21:49.399
(나)의 발표를 듣고 추론한
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.

00:21:49.499 --> 00:21:54.326
솔방울 하나에는 소나무 씨앗
한 개가 들어있다, 아니죠.

00:21:54.426 --> 00:21:56.891
수백 개가, 100개 정도, 70에서
100가 정도 들어 있습니다.

00:21:56.991 --> 00:21:57.938
왜 그럴까요?

00:21:58.038 --> 00:22:01.688
솔방울 하나에 실편이
있다 그랬잖아요.

00:22:01.788 --> 00:22:04.077
실편이 70에서 100개가 있는데.

00:22:04.177 --> 00:22:07.982
그 실편 하나하나마다 씨앗
한 개가 들어가 있다 그랬으니까요.

00:22:08.082 --> 00:22:11.423
습기를 잃으면 안쪽으로
오므라드는 것이 아니라

00:22:11.523 --> 00:22:13.204
습기가 있을 때
안쪽으로 오므라들고,

00:22:13.304 --> 00:22:15.122
습기가 없으면 다시 벌어진다고
얘기했잖아요, 그렇죠?

00:22:15.222 --> 00:22:16.751
비문학 문제네요.

00:22:16.851 --> 00:22:18.981

옛날 사람들은 술방울이
활짝 벌어졌어요.

00:22:19.081 --> 00:22:21.437

그러면 비가 올
가능성이 낮다, 왜?

00:22:21.537 --> 00:22:22.395

건조해지니까요.

00:22:22.495 --> 00:22:23.716

정답 3번이 정답입니다.

00:22:23.816 --> 00:22:24.850

이해 되셨습니까?

00:22:24.950 --> 00:22:28.658

이 추론 문제는 뭐냐면
비문학처럼 이것을 통해서

00:22:28.758 --> 00:22:32.511

우리가 이 내용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
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.

00:22:32.611 --> 00:22:35.297

술방울의 실편 안쪽 조직은
바깥쪽 조직에 비해

00:22:35.397 --> 00:22:36.613

습기에 더 빨리 반응한다.

00:22:36.713 --> 00:22:38.334

바깥쪽에 더 빨리
반응한다고 얘기했죠.

00:22:38.434 --> 00:22:41.534

특성을 응용하여 만든 운동복은
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는 기능.

00:22:41.634 --> 00:22:42.511

아니죠.

00:22:42.611 --> 00:22:44.657

습기를 어떻게 밖으로
배출할 것인가.

00:22:44.757 --> 00:22:48.527

여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
핵심적인 운동복이겠죠.

00:22:48.627 --> 00:22:51.489

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22:51.589 --> 00:22:54.035

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까요?

00:22:54.135 --> 00:22:55.684

답화 두 번째입니다.

00:22:55.784 --> 00:22:58.957

담화 두 번째는 토의,
토론, 협상입니다.

00:22:59.057 --> 00:23:00.763
토의와 토론과 협상입니다.

00:23:00.863 --> 00:23:02.507
토의가 뭐고, 토론이 뭘까요?

00:23:02.607 --> 00:23:03.941
가장 핵심적인 것만.

00:23:04.041 --> 00:23:06.548
토론은 뭐냐면 애들아, 찬반이구요.

00:23:06.648 --> 00:23:10.587
토의는 가장 좋은 방법을
찾아내는 게 바로 토의입니다.

00:23:10.687 --> 00:23:13.192
토의의 개념을 보면 공동의
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아

00:23:13.292 --> 00:23:16.400
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
게 바로 토의입니다.

00:23:16.500 --> 00:23:18.203
협력적 상호 작용의 과정입니다.

00:23:18.303 --> 00:23:21.184
문제 확인, 문제 분석,
대안 탐색, 대안 도출,

00:23:21.284 --> 00:23:23.702
대안 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진다.

00:23:23.802 --> 00:23:26.202
토의는 뭐냐면 협력적인 거야.

00:23:26.302 --> 00:23:28.690
어떤 문제를 해결하기
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

00:23:28.790 --> 00:23:32.089
서로 의견을 모아 가는
과정이 바로 토의죠.

00:23:32.189 --> 00:23:35.966
역할과 태도를 보시면
사회자는 뭐냐면

00:23:36.066 --> 00:23:40.958
토의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해주고,
토의 사항을 순서대로 제시해줘요.

00:23:41.058 --> 00:23:44.176
자유롭고 편안하며 협조적인
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고요.

00:23:44.276 --> 00:23:48.278

참여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
공평하게 배분합니다.

00:23:48.378 --> 00:23:50.588
한 사람한테만 쏠리면 안 되겠죠.

00:23:50.688 --> 00:23:52.777
참여자들 사이의 갈등과 의견
충돌을 조정하고 해결합니다.

00:23:52.877 --> 00:23:56.442
요약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하죠.

00:23:56.542 --> 00:23:58.831
토의자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죠.

00:23:58.931 --> 00:24:02.138
와서 이렇게 멀뚱히 이렇게 보고만
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.

00:24:02.238 --> 00:24:03.626
해결 방안을 미리 생각하고요.

00:24:03.726 --> 00:24:06.467
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하되,
협동 정신을 발휘하여

00:24:06.567 --> 00:24:09.451
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토의
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.

00:24:09.551 --> 00:24:13.991
토의 절차를 숙지하고, 사회자의 지시에
따라 질서를 지켜서 해야겠죠.

00:24:14.091 --> 00:24:15.108
당연합니다.

00:24:15.208 --> 00:24:17.614
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
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요.

00:24:17.714 --> 00:24:21.484
자신의 의사를 말할 때는 어법에
맞는 말로 조리 있게 표현하되

00:24:21.584 --> 00:24:23.625
예의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.

00:24:23.725 --> 00:24:24.912
토의자입니다.

00:24:25.012 --> 00:24:26.131
토의의 유형인데.

00:24:26.231 --> 00:24:27.505
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.

00:24:27.605 --> 00:24:29.188
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.

00:24:29.288 --> 00:24:30.877

심포지엄입니다.

00:24:30.977 --> 00:24:35.122

어떤 논제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
나누어 각 측면의 전문가가,

00:24:35.222 --> 00:24:37.461

전문가가 등장하는 게 심포지엄이다.

00:24:37.561 --> 00:24:38.542

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.

00:24:38.642 --> 00:24:40.637

각자의 의견을 발표하는
토의의 형태로,

00:24:40.737 --> 00:24:43.280

발표자 간 상호 토의는
하지 않고요.

00:24:43.380 --> 00:24:45.186

그냥 발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.

00:24:45.286 --> 00:24:46.552

그게 바로 심포지엄이고.

00:24:46.652 --> 00:24:49.488

패널 토의는 3에서 6명의
전문가가 일반 청중 앞에서

00:24:49.588 --> 00:24:53.560

토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
주고받는 토의가 바로 패널 토의입니다.

00:24:53.660 --> 00:24:56.146

포럼은 공공장소에서
전문가가 어떤 문제에 대한

00:24:56.246 --> 00:24:59.961

해결 방안을 발표한 다음에,
이게 심포지엄과 좀 다르네요.

00:25:00.061 --> 00:25:03.554

청중과 질의, 응답 방식으로 토의를
벌이는 게 바로 포럼입니다.

00:25:03.654 --> 00:25:07.881

원탁 토의, 회의, 세리나, 콜로квиум,
브레인스토밍 등이 있는데.

00:25:07.981 --> 00:25:09.702

모르셔도 됩니다.

00:25:09.802 --> 00:25:11.018

그다음은 토론입니다.

00:25:11.118 --> 00:25:12.981

토론은 대립적입니다.

00:25:13.081 --> 00:25:16.782

아까 토의가 상호
작용이고 협력적이었다면

00:25:16.882 --> 00:25:18.995
토론은 찬성과 반대죠.

00:25:19.095 --> 00:25:21.661
찬성과 반대자가 논거를
들어서, 근거를 들어서

00:25:21.761 --> 00:25:24.619
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워
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

00:25:24.719 --> 00:25:27.318
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
하는 화법의 한 형태로

00:25:27.418 --> 00:25:30.527
경쟁적 상호 작용의 과정이
바로 토론이 되겠죠.

00:25:30.627 --> 00:25:35.631
토론 참여자 역할과 태도를 보면 사회자
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, 여러분.

00:25:35.731 --> 00:25:39.062
사회자는 객관적 입장에서
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하고요.

00:25:39.162 --> 00:25:42.192
질문과 요약을 통해 토론의
진행을 도와주고요.

00:25:42.292 --> 00:25:45.897
토론자들이 토론의 규칙을 미리
알려주고, 논제에서 벗어나면

00:25:45.997 --> 00:25:47.596
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줍니다.

00:25:47.696 --> 00:25:48.941
그건 벗어난 내용이고.

00:25:49.041 --> 00:25:52.105
우리 왜 여러분, 옛날에 100분
토론 이런 게 있었는데.

00:25:52.205 --> 00:25:56.079
요새는 끝장 토론 이런 것도
TV 프로그램에서 나오더라고요.

00:25:56.179 --> 00:25:58.314
이런 거 있잖아요.

00:25:58.414 --> 00:26:00.911
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
서로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.

00:26:01.011 --> 00:26:04.962
자기의 주장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,

조리 있게 얘기해야죠.

00:26:05.062 --> 00:26:07.886

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
논박하고 상대적의 논박을

00:26:07.986 --> 00:26:11.378

효과적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
주장을 변호합니다.

00:26:11.478 --> 00:26:14.280

토론 규칙을 지키고 윤리에
어긋나는 언동을 삼가며

00:26:14.380 --> 00:26:16.110

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질
수 있어야 됩니다.

00:26:16.210 --> 00:26:19.647

거기에서 이제 거짓 자료를
제시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.

00:26:19.747 --> 00:26:23.107

객관적 입장에서 토론자의 발언을
듣고 논거의 정확성, 타당성,

00:26:23.207 --> 00:26:26.148

신뢰성 등과 논지의 일관성,
토론 규칙의 준수 여부 등을

00:26:26.248 --> 00:26:28.562

평가하는 게 바로
청중의 역할입니다.

00:26:28.662 --> 00:26:31.129

논제하고 논거라고
하는 게 있습니다.

00:26:31.229 --> 00:26:32.619

논제하고 논거인데.

00:26:32.719 --> 00:26:36.674

논제는 토론에서 해결하고자 하는
문제를 논제라고 합니다, 여러분.

00:26:36.774 --> 00:26:39.247

논리적인 주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?

00:26:39.347 --> 00:26:42.819

사실 논제, 가치 논제, 정책
논제인데, 구별하겠습니다.

00:26:42.919 --> 00:26:45.740

사실은 논리적 사실
입증이 필요하다.

00:26:45.840 --> 00:26:49.887

즉, 다시 말하면 객관적 증거
자료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26:49.987 --> 00:26:53.087

가치 논제라고 하면 뭐냐면
관점이나 시각을 중요시하는

00:26:53.187 --> 00:26:54.574
철학적인 논제인데.

00:26:54.674 --> 00:26:59.472
얘는, 사실 논거는 그런 사실이
있다, 없다 이것만 따지는 거고요.

00:26:59.572 --> 00:27:02.869
그런 가치 논제라고 하면
이런 가치 있는 일이다.

00:27:02.969 --> 00:27:05.736
이건 옳은 일이다, 옳지 않은
일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

00:27:05.836 --> 00:27:07.108
가치 논제입니다.

00:27:07.208 --> 00:27:10.182
정책 논제는 뭐냐면 실제적인
해결 방안까지 같이 찾는 게

00:27:10.282 --> 00:27:12.800
바로 정책 논제라고
할 수 있는 거죠.

00:27:12.900 --> 00:27:16.017
논거라고 하는 것은
근거에 해당하는 건데.

00:27:16.117 --> 00:27:18.048
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입니다.

00:27:18.148 --> 00:27:22.213
사실 논거는 객관적인 통계,
사례, 실제 예 이거고요.

00:27:22.313 --> 00:27:25.692
의견 논거는 전문가의 의견,
관찰자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

00:27:25.792 --> 00:27:28.976
바로 의견 논거에 해당하는 거죠.

00:27:29.076 --> 00:27:33.288
협상은 뭐냐면 이익과 관련된 갈등을
인식한 둘 이상의 주체들이

00:27:33.388 --> 00:27:36.040
이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
모여서 합의에 이르고자

00:27:36.140 --> 00:27:39.896
대안을 조성하고 구성하는 공동의
의사 결정 과정이 바로 협상입니다.

00:27:39.996 --> 00:27:44.480
협상의 절차와 방법은

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

00:27:44.580 --> 00:27:45.825
서로 확인을 먼저 해야죠.

00:27:45.925 --> 00:27:50.259
저희 이번에 도서관을 좀 이렇게
몇 시부터 몇 시까지 좀 더

00:27:50.359 --> 00:27:54.328
연장해주세요, 이렇게
얘기했더니 도서관 관련자들은

00:27:54.428 --> 00:27:57.467
그것은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.

00:27:57.567 --> 00:28:00.556
이런 것들이 서로 입장을
먼저 얘기해줘야죠.

00:28:00.656 --> 00:28:02.229
그럼 서로 이제 협상을
하는 겁니다.

00:28:02.329 --> 00:28:04.961
어떻게 하나면 그러면 저희
쪽에서 자원봉사자를 좀 이렇게

00:28:05.061 --> 00:28:07.343
투입할 테니까 그런 문제가
해결되지 않겠습니까?

00:28:07.443 --> 00:28:09.651
그러면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.

00:28:09.751 --> 00:28:11.576
이런 내용들이 바로 협상이 되겠죠.

00:28:11.676 --> 00:28:14.483
참여자들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
밝히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

00:28:14.583 --> 00:28:16.249
대안을 제시하고요.

00:28:16.349 --> 00:28:19.084
대안을 상호 검토하면서 양보를
통해 서로 입장 차이를

00:28:19.184 --> 00:28:20.885
좁히는 게 바로 조정입니다.

00:28:20.985 --> 00:28:24.440
해결은 재구성하면서 합의에
이르는 게 바로 협상이겠죠.

00:28:24.540 --> 00:28:28.851
협상 방법은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한
상호 반박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.

00:28:28.951 --> 00:28:30.655

그 입장이 이렇게 잘못됐고요.

00:28:30.755 --> 00:28:32.939

우리 입장은 또 이렇게
이런 입장입니다.

00:28:33.039 --> 00:28:34.492

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.

00:28:34.592 --> 00:28:36.929

상대방 이익과 공동의
이익을 탐색하고,

00:28:37.029 --> 00:28:39.149

질문을 통해서 제안과
평가가 이루어집니다.

00:28:39.249 --> 00:28:43.418

동의를 유도하는 설득이나 양보를
통해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게

00:28:43.518 --> 00:28:46.743

바로 협상의 방법이 됩니다.

00:28:46.843 --> 00:28:48.566

1번 볼까요?

00:28:48.666 --> 00:28:52.404

토론은 공동의 문제 해결하기
위해 공동의 의견, 아닙니다.

00:28:52.504 --> 00:28:53.556

토의죠.

00:28:53.656 --> 00:28:54.742

정답 X입니다.

00:28:54.842 --> 00:28:57.618

둘 이상의 주체들이 모여서
갈등 해결하고 합의하는 게

00:28:57.718 --> 00:28:59.223

바로 협상이겠죠.

00:28:59.323 --> 00:29:02.582

토론 과정에서 청중은 객관적
입장에서 들어야 하며,

00:29:02.682 --> 00:29:04.692

발언에 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.

00:29:04.792 --> 00:29:05.439

틀렸습니다.

00:29:05.539 --> 00:29:06.892

발언에 대해서 평가해야죠.

00:29:06.992 --> 00:29:09.884

마지막 토의의 사회자는 특징
토의자가 발언권을 독점하지 않도록

00:29:09.984 --> 00:29:14.342

조정해서 토의자 간의 발언권을
공평하게 분배하여야 된다.

00:29:14.442 --> 00:29:15.240

당연한 겁니다.

00:29:15.340 --> 00:29:17.471

O가 되겠죠.

00:29:17.571 --> 00:29:20.016

유형 첫 번째 연습해 보겠습니다.

00:29:20.116 --> 00:29:22.887

담화 두 번째, 토의,
토론, 협상입니다.

00:29:22.987 --> 00:29:24.432

1번 볼까요?

00:29:24.532 --> 00:29:28.337

위 토의의 맥락을 고려했을
때 ㉠과 ㉡에 대한 이해로

00:29:28.437 --> 00:29:30.953
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29:31.053 --> 00:29:35.625

㉠과 ㉡, 발표자의 질의응답,
자유 토의, 이거 두 가지입니다.

00:29:35.725 --> 00:29:38.721

[A], [B]에 대한
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29:38.821 --> 00:29:40.659

[A], [B] 나온 거
확인하시면 되겠고.

00:29:40.759 --> 00:29:42.911

[C]의 의의를 가장
잘 설명한 것은?

00:29:43.011 --> 00:29:44.423

맨 마지막 [C]가 나왔잖아요.

00:29:44.523 --> 00:29:48.469

거기의 의의가 뭐냐, 확인합니다.

00:29:48.569 --> 00:29:53.082

이번 모듈 과제를 하려면 먼저
OO의 이해를 읽어야 되잖아.

00:29:53.182 --> 00:29:54.259

어떤 책 이름인가 봐요.

00:29:54.359 --> 00:29:55.806

OO의 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.

00:29:55.906 --> 00:29:59.283

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
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.

00:29:59.383 --> 00:30:00.979
어떻게 하면 좋을지
같이 얘기해 보자.

00:30:01.079 --> 00:30:02.384
일단 사회는 내가 볼게.

00:30:02.484 --> 00:30:05.630
학생 1이 바로 사회자가
돼서 책임기 방식을

00:30:05.730 --> 00:30:07.718
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
결정하는 겁니다.

00:30:07.818 --> 00:30:10.905
그럼 학생 2가 뭐라고 하나면
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

00:30:11.005 --> 00:30:14.141
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
책의 내용을 발표한 다음에

00:30:14.241 --> 00:30:15.985
질의응답하는 방식이 좋겠어.

00:30:16.085 --> 00:30:18.450
한 사람씩 읽어보자는
거죠, 학생 2는.

00:30:18.550 --> 00:30:20.284
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
맡은 부분의 내용을

00:30:20.384 --> 00:30:24.355
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라고
학생 2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

00:30:24.455 --> 00:30:30.014
학생 2의 의견은 무엇이냐면
한 사람씩 발표하고

00:30:30.114 --> 00:30:33.713
그다음에 질의응답하자,
그게 바로 학생 2입니다.

00:30:33.813 --> 00:30:37.160
학생 3은 그럴 경우 발표자 외의
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

00:30:37.260 --> 00:30:38.604
책임감이 덜 할 수 있어.

00:30:38.704 --> 00:30:41.316
그래서 말인데, 자유
토의 방식은 어떨까?

00:30:41.416 --> 00:30:45.001

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해진 분량의
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

00:30:45.101 --> 00:30:46.566
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거야.

00:30:46.666 --> 00:30:50.535
그러면 학생 1이 발표와
질의응답, 자유 토의라는

00:30:50.635 --> 00:30:52.010
두 가지 방안이 나왔어.

00:30:52.110 --> 00:30:53.607
어느 게 좋을 지
한번 말을 해보자.

00:30:53.707 --> 00:30:58.272
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결정할
건지 지금 토의하고 있습니다.

00:30:58.372 --> 00:31:02.419
학생 4를 보니까 발표와
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

00:31:02.519 --> 00:31:04.851
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.

00:31:04.951 --> 00:31:07.174
이건 학생 2의 의견과 똑같죠.

00:31:07.274 --> 00:31:09.827
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
해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,

00:31:09.927 --> 00:31:12.483
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
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.

00:31:12.583 --> 00:31:15.465
학생 5가 뭐라고 하나면 아까
[A], [B]에 대한 설명으로

00:31:15.565 --> 00:31:18.550
적절한 것 아니라고 했으니까
[A] 부분 잘 보셔야겠네.

00:31:18.650 --> 00:31:22.486
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
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

00:31:22.586 --> 00:31:23.801
오해할 위험이 있어.

00:31:23.901 --> 00:31:24.978
그렇죠, 당연하죠.

00:31:25.078 --> 00:31:29.050
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가, 애는 자유
토의 방식인가 봐요, 학생 1은.

00:31:29.150 --> 00:31:31.290

모두가 책을 꼼꼼히 읽고
서로 의견을 나누니까

00:31:31.390 --> 00:31:33.295

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.

00:31:33.395 --> 00:31:35.681

그게 바로 학생 5의 의견입니다.

00:31:35.781 --> 00:31:37.899

자유 토의에 찬성한다는
걸 알 수 있죠.

00:31:37.999 --> 00:31:40.277

학생 3하고 똑같아요.

00:31:40.377 --> 00:31:42.452

학생 2, 하지만, 애는 뭐였어?

00:31:42.552 --> 00:31:44.575

발표, 질의응답하는 입장이었잖아요.

00:31:44.675 --> 00:31:46.842

모든 사람이 매주 정해진
분량의 책을 꼼꼼하게

00:31:46.942 --> 00:31:48.889

다 읽어 와야 하는 것은
솔직히 부담이 돼.

00:31:48.989 --> 00:31:50.614

시간상의 문제가 있어, 이런 거죠.

00:31:50.714 --> 00:31:53.638

학생 3은 나는 조금 부담이
되더라도 책을 꼼꼼히 읽고

00:31:53.738 --> 00:31:55.549

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많은
이야기를 나누고 싶어.

00:31:55.649 --> 00:31:57.523

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.

00:31:57.623 --> 00:32:01.340

하지만 자유 토의 방식은 구심점
역할을 하는 사람들 따로

00:32:01.440 --> 00:32:03.714

정하지 않아서 토의가
활발하게 진행되기 어려워.

00:32:03.814 --> 00:32:05.241

그러니까 학생 4는 뭐였어요?

00:32:05.341 --> 00:32:09.862

짝수는 발표, 질의응답이니까 발표,
질의응답에 찬성하는 거죠.

00:32:09.962 --> 00:32:11.903

자유 토의의 문제점 얘기하는 거야.

00:32:12.003 --> 00:32:14.988
이에 반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
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

00:32:15.088 --> 00:32:16.284
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.

00:32:16.384 --> 00:32:18.877
그랬더니 학생 2가, 또
똑같은 입장이겠죠.

00:32:18.977 --> 00:32:20.792
그리고 자유 토의
방식으로 할 경우에는

00:32:20.892 --> 00:32:23.581
책을 안 읽고 오는 사람이
있다면 문제가 된다.

00:32:23.681 --> 00:32:26.065
책을 읽고 온 사람들은
활발히 참여하겠지만,

00:32:26.165 --> 00:32:27.525
안 읽고 온 사람은
소외될 수도 있어.

00:32:27.625 --> 00:32:30.384
그러다 한두 명씩 빠지다 보면
모임이 어려워질 수 있어.

00:32:30.484 --> 00:32:31.681
이런 문제점을 얘기했어요.

00:32:31.781 --> 00:32:34.711
학생 3은, [A], [B]의
입장 이해하는 게 문제였으니까.

00:32:34.811 --> 00:32:37.163
그건 발표와 질의응답
방식도 마찬가지일 거야.

00:32:37.263 --> 00:32:40.655
발표자가 준비를 제대로 해 오지
않으면 모임을 할 수 없잖아.

00:32:40.755 --> 00:32:42.496
그건 똑같은 입장이라고 얘기하죠.

00:32:42.596 --> 00:32:45.690
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수
있다는 부담감이 발표자에게

00:32:45.790 --> 00:32:47.784
오히려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어.

00:32:47.884 --> 00:32:49.074
왜?

00:32:49.174 --> 00:32:51.289
학생 4는 발표하고 질의응답이니까.

00:32:51.389 --> 00:32:53.682
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
좋을지 결정해 볼까?

00:32:53.782 --> 00:32:57.778
생각해 보니까 자유 토의
방식은, 자유 토의 방식이죠.

00:32:57.878 --> 00:32:59.530
학생 3은 자유 토의
방식이었으니까.

00:32:59.630 --> 00:33:00.977
준비에 시간이 많이
필요할 것 같아.

00:33:01.077 --> 00:33:04.705
다들 책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
싶지만, 현실적으로 책을 꼼꼼하게

00:33:04.805 --> 00:33:06.631
다 읽을 시간적 여유가
없을 것 같아, 안 그래?

00:33:06.731 --> 00:33:10.826
학생 3이 의견을 살짝 바꿨네요.

00:33:10.926 --> 00:33:13.574
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이
좋겠다는 거지?

00:33:13.674 --> 00:33:15.335
내 생각도 마찬가지야.

00:33:15.435 --> 00:33:16.845
또 애도 바뀌었네요.

00:33:16.945 --> 00:33:18.758
다들 책 읽기 모임을
처음 하는 상황이니까

00:33:18.858 --> 00:33:20.683
토의를 하는 것도
익숙하지 않을 거고.

00:33:20.783 --> 00:33:21.755
생각이 바뀌었습니다.

00:33:21.855 --> 00:33:22.881
양보한 거죠.

00:33:22.981 --> 00:33:24.485
마지막 [C]의 의의.

00:33:24.585 --> 00:33:26.345
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
방식으로 해보는 게 어때?

00:33:26.445 --> 00:33:29.825
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, 그것들은
차츰 개선해 나가 보도록 하자.

00:33:29.925 --> 00:33:30.829
모두 동의하지?

00:33:30.929 --> 00:33:32.015
모두 동의를 한다.

00:33:32.115 --> 00:33:33.470
이렇게 끝났습니다.

00:33:33.570 --> 00:33:37.279
위 토의의 맥락을 고려했을
때 ㉠과 ㉡에 대한 이해로

00:33:37.379 --> 00:33:39.332
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.

00:33:39.432 --> 00:33:41.845
㉠은 뭐였냐면 발표였고요.

00:33:41.945 --> 00:33:43.195
써놓자.

00:33:43.295 --> 00:33:45.187
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
이거 메모해야 돼요.

00:33:45.287 --> 00:33:46.746
애는 자유 토의입니다.

00:33:46.846 --> 00:33:47.909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33:48.009 --> 00:33:51.142
㉠은 모임마다 주도적인 역할을
하는 특징인이 사전에 결정된다.

00:33:51.242 --> 00:33:51.813
뭔데?

00:33:51.913 --> 00:33:53.975
발표하는 사람이 있어야
되니까 맞죠.

00:33:54.075 --> 00:33:56.911
준비 과정에서, ㉡은
각 참여자 역할.

00:33:57.011 --> 00:33:59.602
각각의 참여자 모두의
역할이 크다, 적절하죠.

00:33:59.702 --> 00:34:03.024
㉠과 ㉡ 모두에서는
의견을 상호 교환하죠.

00:34:03.124 --> 00:34:06.524
당연히 질의응답도 교환하고, 자유

토론은 더더군다나 교환하겠죠.

00:34:06.624 --> 00:34:09.888

㉠과 ㉡ 모두에서는 매주
모임에서 참여자들이 다룰 분량이

00:34:09.988 --> 00:34:13.970

정해져 있고, 거기에 따라서
발표하는 사람만 읽어올지

00:34:14.070 --> 00:34:17.957

아니면 자유 토론하는 사람들 다
읽어올지 그것만 달라지는 거죠.

00:34:18.057 --> 00:34:21.956

㉠은 참여자들이 사전에 모여서
책을 함께 읽는 방식이고.

00:34:22.056 --> 00:34:24.244

책을 각자 읽는 방식이다.

00:34:24.344 --> 00:34:26.533

㉡은 각자 읽는 방식은 맞아요.

00:34:26.633 --> 00:34:28.351

참여자들이 책을 함께
읽는 방식이 아니죠.

00:34:28.451 --> 00:34:30.295

㉠을 잘못 이해했습니다.

00:34:30.395 --> 00:34:32.388

정답이 5번이 정답이죠.

00:34:32.488 --> 00:34:36.759

책을 함께 읽는 것은 자유 토의니까
그것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.

00:34:36.859 --> 00:34:40.475

[A], [B]에 대한 설명으로
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.

00:34:40.575 --> 00:34:43.760

[A] 부분은 뭐였냐면
오해할 위험이 있어.

00:34:43.860 --> 00:34:45.433

자유 토의 방식은 이런 거야.

00:34:45.533 --> 00:34:49.715

그러면 1번, [A]에서는 특정
방안의 단점을 언급했어요?

00:34:49.815 --> 00:34:55.650

특정 방안이 바로 뭐냐면 발표,
질의응답에 대한 단점을 언급했습니다.

00:34:55.750 --> 00:34:57.410

다른 방안의 단점을 제시했다.

00:34:57.510 --> 00:35:01.468

자유 토론의 방식을 장점,
서로 읽고 의견 나누니까

00:35:01.568 --> 00:35:04.240

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
수 있지라고 얘기했으니까

00:35:04.340 --> 00:35:06.725

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35:06.825 --> 00:35:09.994

다른 거는 안 봐도
될 것 같습니다.

00:35:10.094 --> 00:35:11.515

3번 볼까요?

00:35:11.615 --> 00:35:13.728

위 토의의 흐름으로 봤을
때 [C]의 의의를

00:35:13.828 --> 00:35:16.513

가장 잘 설명한 것을
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35:16.613 --> 00:35:20.445

[C]를 보니까 질의응답
해보는 게 어때?

00:35:20.545 --> 00:35:23.003

문제점이 있지만, 차츰
개선해 가도록 하자.

00:35:23.103 --> 00:35:25.975

모두 동의하지라고 했으니까
세부 계획 안 나왔죠.

00:35:26.075 --> 00:35:30.921

문제점 보완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
실행하는 데 합의하였다고

00:35:31.021 --> 00:35:33.626

되어 있는데, 정답은
2번이 정답입니다.

00:35:33.726 --> 00:35:36.665

문제점이 있어, 차츰 개선하자.

00:35:36.765 --> 00:35:38.094

그게 바로 특정 방안.

00:35:38.194 --> 00:35:42.614

다시, 문제점 보완을 전제로
해서 발표, 질의응답하자.

00:35:42.714 --> 00:35:44.710

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정답 2번.

00:35:44.810 --> 00:35:46.660

제3의 방안 절충 없고요.

00:35:46.760 --> 00:35:48.674

소수 의견 존중 없고요.

00:35:48.774 --> 00:35:51.282

오류 가능성 줄이기 위해 특정
방안에 대한 전문가 없습니다.

00:35:51.382 --> 00:35:54.075

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35:54.175 --> 00:35:55.604

됐습니까, 여러분?

00:35:55.704 --> 00:35:59.225

여러분 PPT 바꾸고 그다음
내용 이어가겠습니다.

00:35:59.325 --> 00:36:02.105

여러분, 유형 연습
두 번째,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36:02.205 --> 00:36:05.224

유형 연습 두 번째 보면 토의,
토론, 협상 두 번째입니다.

00:36:05.324 --> 00:36:06.525

문제를 한번 볼까요?

00:36:06.625 --> 00:36:10.274

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.

00:36:10.374 --> 00:36:11.944

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.

00:36:12.044 --> 00:36:13.070

이거 되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.

00:36:13.170 --> 00:36:15.853

2번, 토론 과정에 대한
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36:15.953 --> 00:36:18.292

여기에서 입론, 입론,
반론, 반론, 반론.

00:36:18.392 --> 00:36:22.689

이게 바로 뭐냐면 반대 신문식
토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

00:36:22.789 --> 00:36:24.363

토론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.

00:36:24.463 --> 00:36:27.883

그다음에 3번은 위 토론
방식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

00:36:27.983 --> 00:36:31.292

찬성 측과 반대 측이
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

00:36:31.392 --> 00:36:34.093
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
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.

00:36:34.193 --> 00:36:35.485
이게 무슨 얘기일까?

00:36:35.585 --> 00:36:39.846
잘 보시면 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
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

00:36:39.946 --> 00:36:40.989
가볼게요.

00:36:41.089 --> 00:36:44.458
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하자는 의견이
학교 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

00:36:44.558 --> 00:36:45.981
사회자 역할 잘 보셔야 돼.

00:36:46.081 --> 00:36:48.317
하지만 이 방송을 현행대로
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.

00:36:48.417 --> 00:36:49.582
찬반이 벌써 나타나죠.

00:36:49.682 --> 00:36:52.635
그래서 교내 음악 방송을
폐지해야 한다는 논제로

00:36:52.735 --> 00:36:54.944
토론을 하고자 합니다.

00:36:55.044 --> 00:36:59.287
입론은, 입론은 뭐냐면 그냥 자기
입장을 얘기하는 게 입론입니다.

00:36:59.387 --> 00:37:03.183
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시고,
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해 주세요.

00:37:03.283 --> 00:37:06.420
그러면 입론, 처음
말하는 게 찬성자 1이

00:37:06.520 --> 00:37:09.334
바로 입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.

00:37:09.434 --> 00:37:12.741
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
공부할 권리가 침해되므로

00:37:12.841 --> 00:37:14.812
음악 방송은 폐지해야 됩니다.

00:37:14.912 --> 00:37:17.102
음악 방송, 여기에서
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

00:37:17.202 --> 00:37:20.836

음악 방송 폐지에 대한
찬성입니다, 여러분.

00:37:20.936 --> 00:37:25.356

음악 방송 없애야 된다고 하면
찬성 입장이야, 반대 입장이야?

00:37:25.456 --> 00:37:27.364

선생님, 음악 방송에
대한 반대 입장.

00:37:27.464 --> 00:37:28.366

아닙니다, 여러분.

00:37:28.466 --> 00:37:29.559

이게 헛갈릴 수 있어요.

00:37:29.659 --> 00:37:31.287

음악 방송 폐지에 대한 찬성입니다.

00:37:31.387 --> 00:37:33.129

이것 때문에 틀린
경우도 있었습니다.

00:37:33.229 --> 00:37:34.420

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

00:37:34.520 --> 00:37:35.770

그러니까 찬성 1이 입론했습니다.

00:37:35.870 --> 00:37:39.998

공부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교내
음악 방송이 폐지되어야 합니다.

00:37:40.098 --> 00:37:42.858

반대자 1은, 서로 번갈아가면서
입론을 얘기하니까.

00:37:42.958 --> 00:37:45.287

교내 음악 방송은 유지해야 합니다.

00:37:45.387 --> 00:37:48.339

교내 음악 방송 폐지는 휴식
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며

00:37:48.439 --> 00:37:50.831

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
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00:37:50.931 --> 00:37:56.214

둘 다 권리를 들어서 둘 다 이제
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와 있네요.

00:37:56.314 --> 00:37:58.918

찬성자 2는 이것도
역시 입론입니다.

00:37:59.018 --> 00:38:02.264

교내 음악 방송은 빠른
템포의 댄스 음악 위주라서

00:38:02.364 --> 00:38:04.485

공부 방해가 되고,
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.

00:38:04.585 --> 00:38:07.507

그다음에 반대자 2는 음악
감상은 청소년 정서에

00:38:07.607 --> 00:38:09.691

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
연구도 많습니다.

00:38:09.791 --> 00:38:13.257

또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
긴장감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.

00:38:13.357 --> 00:38:16.145

여기까지가 바로 입론이라고
하는 겁니다.

00:38:16.245 --> 00:38:18.159

각자 입장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.

00:38:18.259 --> 00:38:21.483

그다음 뭘 하는 거냐면 하나하나 그
입장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다.

00:38:21.583 --> 00:38:23.337

사회자가 중간에 나오겠죠.

00:38:23.437 --> 00:38:27.058

찬성 측은 공부할 권리를, 반대
측은 음악을 들으며 쉴 권리를

00:38:27.158 --> 00:38:29.935

근거로 각각 음악 방송의
폐지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.

00:38:30.035 --> 00:38:31.892

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?

00:38:31.992 --> 00:38:34.598

각각의 역할을 요약,
정리해주는 역할도 했죠.

00:38:34.698 --> 00:38:38.832

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해
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38:38.932 --> 00:38:39.863

같까요?

00:38:39.963 --> 00:38:44.068

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는
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.

00:38:44.168 --> 00:38:46.804

그러니까 찬성 측이 아까
공부에 방해된다고 했으니까

00:38:46.904 --> 00:38:48.940

거기에 대한 전문가의
견해를 들어서,

00:38:49.040 --> 00:38:51.122

물론 전문가가 직접
나오지는 않았지만,

00:38:51.222 --> 00:38:55.786

견해도 있습니다라고 사례를 제시하면서
반대 의견 제시하고 있죠.

00:38:55.886 --> 00:38:58.603

따라서 음악 방송이 공부에
방해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

00:38:58.703 --> 00:38:59.874

억지 주장입니다.

00:38:59.974 --> 00:39:00.971

억지 주장이라고요?

00:39:01.071 --> 00:39:02.951

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
말해도 되나요, 네?

00:39:03.051 --> 00:39:04.772

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, 여기?

00:39:04.872 --> 00:39:06.910

억지 주장입니다, 이것도
좀 이상하고요.

00:39:07.010 --> 00:39:09.579

애가 감정적으로 얘기했다는
것도 좀 문제가 있죠.

00:39:09.679 --> 00:39:13.270

그랬더니 사회자가 자극할 수
있는 발언을 삼가주십시오라고

00:39:13.370 --> 00:39:14.679

얘기했습니다.

00:39:14.779 --> 00:39:16.613

뭔가 문제가 있다는
거 알 수 있죠?

00:39:16.713 --> 00:39:18.228

찬성자 1은 반론해야죠.

00:39:18.328 --> 00:39:20.714

공부에 방해되지 않는
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.

00:39:20.814 --> 00:39:21.684

보세요.

00:39:21.784 --> 00:39:24.465

아까 문제가 뭐였냐면
찬성 측 협상할 때

00:39:24.565 --> 00:39:26.766

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
있다는 것은, 봐봐.

00:39:26.866 --> 00:39:30.585

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
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

00:39:30.685 --> 00:39:32.095

학습에 지장을 주는
것이 사실입니다.

00:39:32.195 --> 00:39:34.748

그러면 조용한 음악은 받아들일
수 있다는 거잖아요.

00:39:34.848 --> 00:39:36.327

그 입장을 찾으라는 거죠.

00:39:36.427 --> 00:39:40.086

조용한 음악이라고 하면 받아들일
수 있다는 입장이예요.

00:39:40.186 --> 00:39:43.761

그러니까 찬성자의 교섭 범위에
해당할 수 있는 거죠.

00:39:43.861 --> 00:39:45.768

이만큼 양보할 수 있어,
여기까지는 내가 받아들일게.

00:39:45.868 --> 00:39:49.083

그 입장을 찾으라는
겁니다, 3번 문제는.

00:39:49.183 --> 00:39:53.204

반대자가 뭐라고 하냐면 짧은
방송 시간에 여러 장르 음악을

00:39:53.304 --> 00:39:55.378

섞어 들느니, 지금처럼
댄스 음악만 들으며

00:39:55.478 --> 00:39:57.267

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.

00:39:57.367 --> 00:40:00.852

그게 아니면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
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00:40:00.952 --> 00:40:05.203

어떤 반은 스피커 켜놓고,
꺼놓고 이럴 수도 있겠군요.

00:40:05.303 --> 00:40:08.101

현재 교내 음악 방송을 들을
수 있는 곳은 교실뿐이니까

00:40:08.201 --> 00:40:11.620

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

공부하세요, 이렇게 얘기하는군요.

00:40:11.720 --> 00:40:14.864

찬성자 2는 우리에게는
도서관으로 가라고 하고,

00:40:14.964 --> 00:40:17.826

반대 측은 지금처럼 교실에서
계속 음악을 듣겠다는 것은

00:40:17.926 --> 00:40:19.549

일방적인 강요 아닌가요?

00:40:19.649 --> 00:40:21.303

우리도 교실에서 편하게
공부하고 싶습니다.

00:40:21.403 --> 00:40:26.010

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반별로 선택하게
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,

00:40:26.110 --> 00:40:27.427

이것도 역시 받아들였어요.

00:40:27.527 --> 00:40:29.792

찬성 측이 교섭 범위가
이것도 되는 거죠.

00:40:29.892 --> 00:40:32.597

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
불편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

00:40:32.697 --> 00:40:34.683

양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.

00:40:34.783 --> 00:40:39.073

교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두고
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

00:40:39.173 --> 00:40:40.157

문제 볼까요?

00:40:40.257 --> 00:40:42.329

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
역할에 대한 설명으로

00:40:42.429 --> 00:40:44.330

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.

00:40:44.430 --> 00:40:46.119

쟁점 정리하고 있죠.

00:40:46.219 --> 00:40:51.436

뭐가 있냐면 교실 음악 방송
폐지냐 유지냐, 정리했죠.

00:40:51.536 --> 00:40:54.571

쟁점이라고 하는 건 논쟁의
중심이 된다는 겁니다.

00:40:54.671 --> 00:40:57.278

토론 진행 절차에 맞게
발언 순서 지정해줬죠.

00:40:57.378 --> 00:41:00.466

찬성자 먼저 하시고
반론은 반대자 하세요.

00:41:00.566 --> 00:41:02.564

열리게 된 배경 처음에 설명했죠.

00:41:02.664 --> 00:41:03.766

논제 소개했습니다.

00:41:03.866 --> 00:41:06.414

감정적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
개입했습니다, 중간에.

00:41:06.514 --> 00:41:10.152

모호한 발언에 대해서
질문하고 있는 건 없죠.

00:41:10.252 --> 00:41:11.369

그게 무슨 뜻인가요?

00:41:11.469 --> 00:41:13.154

이렇게 질문하고 있는
부분이 없었습니다.

00:41:13.254 --> 00:41:15.039

너무 쉬운 문제입니다, 여러분.

00:41:15.139 --> 00:41:16.167

정답 5번이고요.

00:41:16.267 --> 00:41:19.904

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
것을 골라라라고 얘기했는데.

00:41:20.004 --> 00:41:25.205

정답을 확인하면 우선 1번.

00:41:25.305 --> 00:41:29.225

찬성 2는, 찬성 2 입장 가서
확인하시면 돼요, 여러분.

00:41:29.325 --> 00:41:31.091

이건 좀 귀찮은 문제일 뿐이야.

00:41:31.191 --> 00:41:35.851

학생들의 무관심 지적하며,
이거 없었습니다.

00:41:35.951 --> 00:41:38.361

입론에서 반대자 2는,
입론이 처음이잖아요.

00:41:38.461 --> 00:41:42.110

반대자 2의 입장은 정서에
긍정적 영향을 준다,

00:41:42.210 --> 00:41:44.558

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,
긴장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.

00:41:44.658 --> 00:41:47.670
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
미친다는 연구를 언급하며, 맞습니다.

00:41:47.770 --> 00:41:49.750
반대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.

00:41:49.850 --> 00:41:51.280
정답 2번이 정답이죠.

00:41:51.380 --> 00:41:54.530
이거는 여러분, 입론이
위에 네 개가 입론이고,

00:41:54.630 --> 00:41:57.104
그 밑에가 반론이라고 하는
거 확인하시면 되고,

00:41:57.204 --> 00:42:01.551
각각의 입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게
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

00:42:01.651 --> 00:42:03.249
그게 정답이 됩니다.

00:42:03.349 --> 00:42:04.981
정답은 2번입니다.

00:42:05.081 --> 00:42:07.832
다른 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.

00:42:07.932 --> 00:42:12.143
이게 뭐냐면 찬성 측과 반대
측이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

00:42:12.243 --> 00:42:15.360
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
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.

00:42:15.460 --> 00:42:19.534
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처럼
보이지만, 실현 가능한 타협점을

00:42:19.634 --> 00:42:23.117
찾아야 하는데, 목표점에서
최종 양보점까지의 영역.

00:42:23.217 --> 00:42:24.276
이것까지는 내가 인정한다.

00:42:24.376 --> 00:42:29.379
아까 뭐였냐면 찬성 측의 목표점이
이건데,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.

00:42:29.479 --> 00:42:33.244
찬성 측이 여기까지 양보할 수
있다, 여기까지 양보할 수 있다.

00:42:33.344 --> 00:42:35.408

최종 양보점이 있죠.

00:42:35.508 --> 00:42:38.608

그게 뭐였냐면 아까 그래,
너희 음악 튼다고?

00:42:38.708 --> 00:42:41.187

조용한 음악이면
인정해줄게, 이런 거예요.

00:42:41.287 --> 00:42:44.297

조용한 음악이면 인정해줄게,
이런 거였잖아요, 그렇지?

00:42:44.397 --> 00:42:46.698

그다음에 반별로 결정하는
것까지는 인정해줄게.

00:42:46.798 --> 00:42:48.248

거기까지 얘기했잖아요, 그렇지?

00:42:48.348 --> 00:42:50.318

반대자도 어디까지 범위가
있을 거 아니야.

00:42:50.418 --> 00:42:52.771

이 범위가 넓어지면
넓어질수록 합의할 수 있는

00:42:52.871 --> 00:42:54.156

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

00:42:54.256 --> 00:42:56.032

이 표가 어려울 뿐이지, 애들아.

00:42:56.132 --> 00:42:59.925

이 표의 의미가 뭔지만
알면 쉽게 문제가 풀려요.

00:43:00.025 --> 00:43:03.660

찬성 측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지
그 입장만 찾으면 됩니다.

00:43:03.760 --> 00:43:04.956

1번 볼까요?

00:43:05.056 --> 00:43:07.205

방해되지 않는 범위
내에서 조용한 음악이면

00:43:07.305 --> 00:43:09.591

찬성 측이 인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.

00:43:09.691 --> 00:43:12.990

학급별로 구성원 의견에 따라 반별
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결정한다.

00:43:13.090 --> 00:43:14.824

이것도 애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.

00:43:14.924 --> 00:43:17.267

도서관으로 이동하기
싫다고 얘기했잖아요.

00:43:17.367 --> 00:43:19.475

시간을 연장한다, 이것도 틀렸죠.

00:43:19.575 --> 00:43:21.649

시간 연장, 이견 반대
입장이니까 아예.

00:43:21.749 --> 00:43:24.779

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
정답이 되겠죠.

00:43:24.879 --> 00:43:28.708

그래서 3번 문제는 교섭
범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

00:43:28.808 --> 00:43:30.319

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.

00:43:30.419 --> 00:43:33.164

그러니까 찬성 측이 반대
측 입장의 의견 중에

00:43:33.264 --> 00:43:36.586

어디까지 인정했는지만 찾으시면
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
00:43:36.686 --> 00:43:39.489

여러분, 여기까지
화법을 마쳤습니다.

00:43:39.589 --> 00:43:41.554

다음 시간에 작문, 절차 하고요.

00:43:41.654 --> 00:43:44.842

마지막 이제 실전 다지기 문제로 총
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00:43:44.942 --> 00:43:45.977

여러분, 여기까지 하고요.

00:43:45.997 --> 00:43:46.850

다음 시간에 뵈게요.

00:43:46.869 --> 00:43:47.492

수고하셨습니다.